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은 학교 축제 바자회 운영에 대한 토론의 일부이다. 학생2가 밑줄 친 부분에서 준수하고 있지 않은 토론의 자세는?

학생1: 매년 학교 축제에서 우리 봉사반이 실시하고 있는 바자회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25만원의 수익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방송국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봉사반을 더욱 알릴 겸, 올해는 더 많은 수익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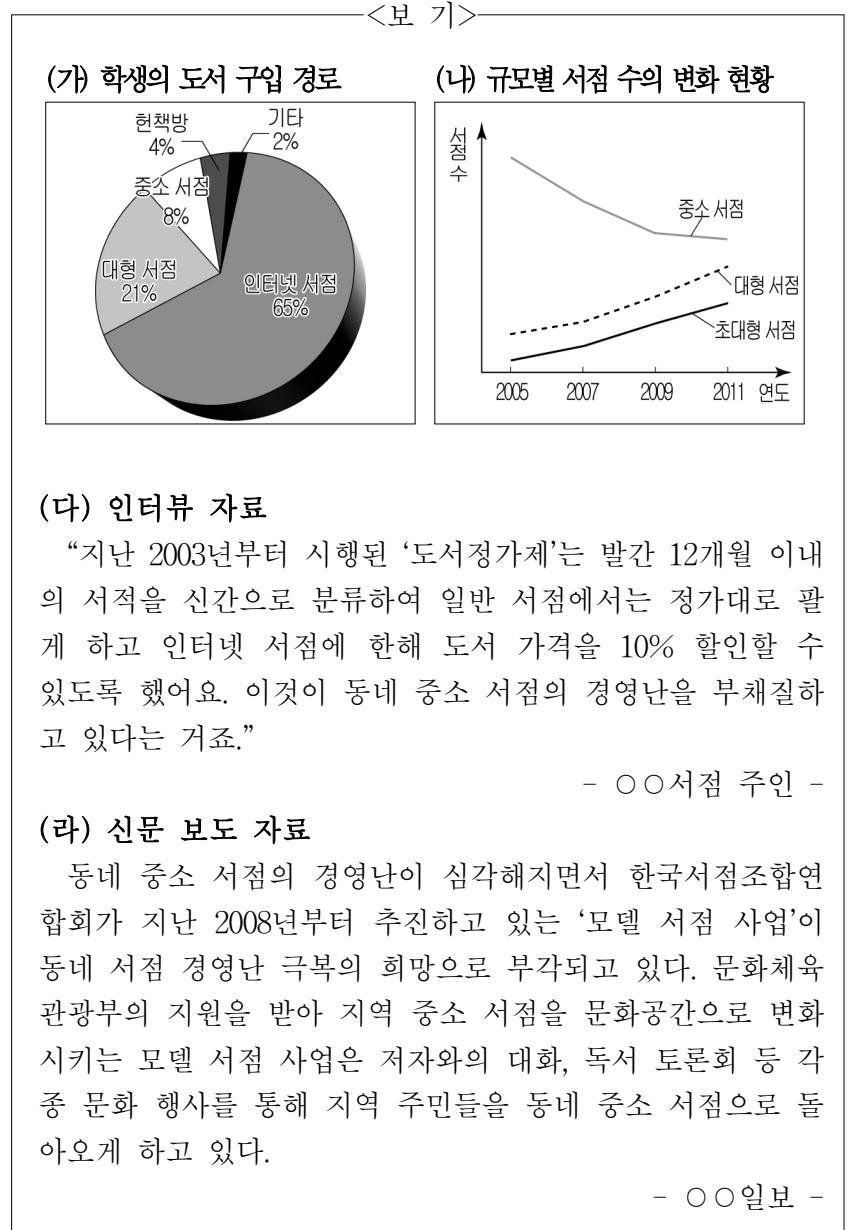
학생2: 맞습니다. 바자회는 이제 우리 봉사반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수익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익금을 방송국에 기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학생1: 저는 방송에 방영된 우리 동아리를 보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정말 내가 봉사 활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2: 제가 하는 말을 참 못 알아들으시네요. 방송에 이름을 내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수익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우에게 장학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우리 학우들에게 이익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① 듣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②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 ③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며 상대방의 말에 차분히 대응한다.
- ④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한다.
- 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강조한다.

2. '동네 서점이 사라져 가는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하여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학생들의 도서 구입 경로가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 편중되어 있다.
- ② (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동네 서점이 점점 사라져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③ (나)+(다): 서점의 대형화 추세와 인터넷 서점의 할인 판매 속에서 동네 서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④ (다)+(라): 정부의 지원을 각종 문화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의 수정·보완 등 좀 더 적극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⑤ (가)+(나)+(라): 동네 서점이 사라져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점들 스스로가 문화 행사의 적극적 개최와 서점의 규모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

3. <보기>는 '재능 기부'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재능 기부의 개념 및 현황	㉠
II.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1.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	
2. 물질적 기부만 기부라는 인식	㉡
3. 재능 기부 확대를 위한 정책 미비	
4. 재능 기부 방식에 대한 안내 부족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
1. 기부에 대한 기존의 인식 개선	
2. 재능 기부 활성화 정책 도입 및 실시	
3. 인터넷 기부 방식 도입	㉣
IV. 결론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① ㉠에는 '물질적 기부에 편중된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충한다.
- ② ㉡은 II-1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하나로 통합한다.
- ③ ㉢에는 II-4를 고려하여 '재능 기부 방식에 대한 홍보'를 추가한다.
- ④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로 바꾼다.

4. <보기>의 조건에 따라 시조 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초장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단풍이 든 가을 산의 모습'을 표현할 것.
○ 색채의 대비 및 의인법을 사용할 것.
초장: 시원한 가을 바람 솔솔솔 불어오니
중장: _____
종장: _____

- ① 서로에게 기대어서 한여름을 지내던 이 눈시울 붉어진 채로 우수수 흩어지네
- ② 오래된 그리움이 고운 입을 불러왔나 푸르른 하늘 아래서 활짝 웃는 붉은 산
- ③ 지나간 발자국에 그리움을 남겨두고 낙엽 진 책장마다에 옛 추억을 떠올리네
- ④ 훌쩍 자란 코스모스 하늘하늘 춤을 추고 점잖은 노란 국화들 지그시 바라보네
- ⑤ 푸른 잎 있던 자리 붉게 물든 가을 단풍 하나둘 불어난다네 석양빛이 번지듯

5. <보기>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찬란한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의 ㉠ <u>넋이요</u> , 혼이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보배인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 <u>함부로</u> 대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 <u>'눈 가리고 아웅한다'</u> 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당한 뒤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누구 때문이니 하고 책임을 물어봤자 한번 소실된 문화재는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가 ㉣ <u>어렵다</u> . ㉤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관심을 두고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 기관과 시민 단체를 통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 및 학술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① ㉠: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연결되므로 '넋이오'로 바꾼다.
- ② ㉡: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화재를'을 보충한다.
- ③ ㉢: 속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바꾼다.
- ④ ㉣: 문장 호응을 고려하여 '어렵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⑤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문단을 나눈다.

6. <보기>의 ㄱ~ㄴ에 표시된 호칭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엄친, <input type="checkbox"/> 선친, <input type="checkbox"/> 춘부장, <input type="checkbox"/> 아범)께서는 출타 중이십니다.
ㄴ. 오늘 제 (<input type="checkbox"/> 엄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친, <input type="checkbox"/> 춘부장, <input type="checkbox"/> 아범)의 제사가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해요.
ㄷ. 자네 (<input type="checkbox"/> 엄친, <input type="checkbox"/> 선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춘부장, <input type="checkbox"/> 아범)께서는 안녕하신가?
ㄹ. 어머님, 돌이 (<input type="checkbox"/> 엄친, <input type="checkbox"/> 선친, <input type="checkbox"/> 춘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범)이 늦겠다고 전화 했어요.

- ① ㄱ~ㄴ의 '엄친, 선친, 춘부장, 아범'은 모두 '자녀를 둔 남자'를 뜻하는군.
- ② ㄱ의 '엄친'은 '제'라는 표현으로 보아 화자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군.
- ③ ㄴ의 '선친'은 '제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화자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군.
- ④ ㄷ의 '춘부장'은 '자네'라는 표현으로 보아 청자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군.
- ⑤ ㄹ의 '아범'은 '어머님'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화자의 아버지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군.

7.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사동 표현’에 대해 탐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 주동문(S₀):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사동문(S₁):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S₂):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 ① S₀과 S₂에서 ‘옷을 입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 ② S₀을 S₁이나 S₂로 바꿀 때에는 S₀의 주어가 S₁, S₂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③ S₀에 없던 주어 ‘어머니’가 S₁, S₂에 나타난 것은 사동 표현이 행위를 시키는 주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 ④ S₀의 동사 ‘입다’의 어간 ‘입-’에 S₁의 사동 접사 ‘-히-’ 또는 S₂의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⑤ S₂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아이에게 옷을 입혔을 수도, 아이에게 옷을 입도록 지시만 했을 수도 있는 중의성이 생긴다.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 나무리면: ‘나무라면’의 함경도 방언.

(나)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연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牽牛)의 노래」 -

(다) 달님 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 ㉡ 시장에 가 계신가요
- ㉢ 진 테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 ㉣ 어느 곳이나 놓으십시오
- 내 가는 데 ㉤ 저물까 두렵습니다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井邑詞)」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음절수를 늘린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라는 시간 의식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여 시간은 ‘과거-미래’로 직접 연결된다.

과거 ...X... 현재 ...X... 미래

- ① 화자는 ‘먼 후일’인 미래에 비로소 과거의 ‘당신’을 잊겠군.
- ② ‘그때’는 화자가 ‘당신’과 이별했던 과거의 상황을 의미하는군.
- ③ 화자는 ‘당신’과의 대결 의지를 현재인 ‘오늘’에서 드러내는군.
- ④ 화자는 ‘먼 후일’과 ‘잊었노라’를 결합하여 ‘오늘’의 이별 상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군.
- ⑤ 화자가 ‘먼 후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제’에 ‘당신’이 남긴 약속을 영원히 잊지 못해서이군.

11.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 만남을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④ ㉣: 이별을 참고 견디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 만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다.

12. 반달과 달님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달과 달님은 모두 임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② 반달과 달님은 모두 화자의 슬픈 정서를 드러낸다.
 - ③ 반달은 만남의 시간을, 달님은 만남의 매개자를 의미한다.
 - ④ 반달은 불완전한 사랑을, 달님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
 - ⑤ 반달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님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읍은 전주에 소속된 현(縣)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내는 산 위 바위에 올라 남편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언덕에 망부석으로 변해 남아 있다고 한다.

- 고려사 악지, 「삼국 속악 백제조」 -

- ① ㉠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에서 남편의 직업이 상인임을 알 수 있다.
- ③ ㉢는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④ ㉣에는 남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아내의 당부가 나타난다.
- ⑤ ㉣에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 의지가 드러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에게 온달은 동화에서는 바보로, ‘온달 콤플렉스’라는 말에서는 부인 덕에 벼락출세한 남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온달은 정사(正史)에 나타나지 않는 설화적 인물이다. 그러나 고려의 대문장가 김부식은 온달을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과 함께 『삼국사기』에 「온달전」으로 입전하였다. 이 「온달전」을 중국인 도경산은 ‘천하의 기문(奇文)’이라고 찬탄하였고, 한말의 문장가 김택영은 우리나라 오천 년 이래 최고의 명문장으로 꼽았다. 김부식이 「온달전」에서 사용한 문장 작법은 무엇이고, 그가 정성을 다해 온달을 입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온달전」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기와 승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에서는 **쌍관법**으로 두 개의 문장이 열리듯 온달의 외모와 가난한 행색을 묘사한 뒤, 평강왕과 공주 사이의 일을 나란히 펼쳐 장차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사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두에 한두 마디 말을 미리 제시해 둔 후, 중간과 이것을 호응시킴으로써 맥락을 살아나게 하는 **예복법**을 사용하였다. 온달의 용모가 ‘피죄죄하여 우스웠으나, 속마음은 맑았다.’라고 하여 뒷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것을 암시한 것이 그것이다. 승에서는 공주와 온달 모, 온달과 공주, 공주와 모자의 만남이 한층 한층 전개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번다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층첩법**을 사용하였다.

전과 결은 서사의 변화를 통해 중국으로 치닫는 부분이다. 전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 될 때 과감하게 어느 하나를 생략하는 **생필법**을 사용하였다. 병들고 말라서 궁에서 쫓겨난 말을 ‘공주가 기르고 먹이기를 몹시 부지런히 하니, 말이 날로 살지고 또 튼튼해졌다.’라고만 하고 온달이 가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무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생략하였다. 결에서는 앞에서 풀어놓고 뒤에서 낚아채서 길게 여운을 남기는 **종금법**을 사용하였다.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고토 회복의 의지를 직접 말하게 하여 길게 풀어놓았다가 짧은 단문으로 그의 죽음을 곧바로 덧대어 급속도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면 「온달전」에서 두 주인공 공주와 온달은 어떻게 형상화되었을까? 공주는 어릴 적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말한 왕의 농담을 ‘임금이 식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 온달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이때 공주는 온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온달은 자신을 찾아온 공주에게 이것 [A]은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꾸짖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법도를 아는 인물이었다. 충애와 권세가 극에 달했던 온달이 나라를 위해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허망하게 죽었을 때 관이 움직이지 않은 것도 애정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살아서의 맹세를 지키겠다는 것 때문이었다.

「온달전」은 화려하여 이목을 놀라게 하는 표현은 없지만 담담한 가운데 짝 짜인 짜임새를 이루어 한 글자를 빼거나 바꾸어도 어색해지고 짜임새가 흐트러지는 명문이다. 김부식은 이러한 걸작을 통해 ㉠고구려가 북방의 강대국이 된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14. 위 글의 「온달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달을 고구려의 대표적인 장수로 다루었다.
- ② 국내외의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글이다.
- ③ 「온달전」의 온달은 동화 속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 ④ 인물의 신기한 혼인담을 흥미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표현의 화려함보다 구조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글이다.

15. [A]의 내용으로 보아 ㉠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용 ② 신의 ③ 예의 ④ 용맹 ⑤ 지식

16. 위의 문장 작법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앞부분의 ‘공주가 보물 팔찌 수십 매를 가지고 팔꿈치 뒤에 매고서 궁궐을 나와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이에 금팔찌를 팔아서 밭과 집, 소와 말 따위를 사서 쓸 거리를 두루 갖추었다.’라고 하는 뒷대목과 조응하는 순간, 앞의 구절이 갑자기 도약하여 빛을 발한다. 만일 이 말이 없으면, 이 장면에 ‘이에 앞서 공주는 궁궐을 나올 때에 패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하는 군더더기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뒷북치는 글이 되어 문장의 활력이 사라지고 만다.

- ① 쌍관법 ② 예복법 ③ 층첩법 ④ 생필법 ⑤ 종금법

17. 위 글의 「온달전」과 <보기>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세상에 명마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백락이 있는 후에야 천리마가 있게 된다.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록 명마가 있을지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서 육이나 당하며 마구간에서 보통 말과 나란히 죽게 되어 천리마라 불리지 못하게 된다.

천리마는 한 끼에 간혹 한 섬을 먹어 치운다. 그런데 말을 먹이는 자가 그 천리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보통 말과 같이 먹이니 천리마가 비록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으나, 배가고파 힘이 부족해서 그 천리를 가는 재주를 밖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 한유, 「잡설」 -

- ① 「온달전」은 필자의 주장에, <보기>는 사건의 전개에 주목하여 읽게 되는군.
- ② 온달이 <보기>의 노예를 만났다면 보통 말과 같은 일생을 살았겠군.
- ③ <보기>는 말이라는 소재를 인재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군.
- ④ 온달은 공주에 의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게 되는군.
- ⑤ 백락은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영은 홀로 엄마(연순)의 고향인 제주도 성마을을 방문하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엄마의 과거 시절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나영은 젊은 시절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나영이 만난 엄마는 영호를 뒷바라지하며 해녀로 살아가고 있는 20살 처녀의 모습이다.

S#43 연순 집 마당

집으로 들어서는 연순과 나영. 부엌에서 매캐한 연기가 폴폴 피어오른다. 끈이어 얼굴이 하얗게 밀가루 투성이인 영호가 튀어 나온다.

연순 (우울하던 차에 화가 확 오른다.) 너 지금 뭐더냐? 불싸질러라고 작정을 했냐? 시방.

㉠(연순,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다 타버린 프라이팬을 들고 나온다.)

연순 내가 너때미 못 산다. 왜 그렇게 속을 썩기냐아. 뭐한다고 이 지랄이냐아.

(연순, 달려들어 영호의 등을 철썩 철썩 때린다. 영호,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

영호 아, 아피어, 서울서 온 누나 해물전 해줄라고 했던말여. 나 먹을라고 한 거 아녀. (나영에게 호소) 정말이다. 누나 즐라고 한 거여요.

연순 뭐여? 이자는 거짓말꺼정 허냐. 잘못 했으면 헛다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영에게) 해물전 먹고 잤어요?

(나영, 고개를 끄덕인다.)

S#44 연순 집 부엌

먹음직스럽게 부쳐지는 부침개. 옆에서는 영호가 벌써 한장을 입이 터져라 먹고 있다.

영호 (찢어지는 노래. 하지만 멈지 않다.) 도운-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으아아!

(나영도 젓가락으로 먹고 있다.)

영호 누나가 우릴 죽일려구 해!

연순 뭘 소리여?

영호 다 알아. 부침개로 배 터뜨려 죽일려고 그러는거잖여.

나영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순 우리 입만 입이냐요? 기름 냄시가 온 동네 다 퍼졌는디 한 쪽씩은 모다 맛 좀 봐야지요오이.

(이미 소쿠리에 산더미처럼 부침개가 쌓여 있다.)

S#45 갈림길

연순, 나영, 영호가 각기 그릇에 부침개를 들고 있다.

연순 나는 이 짹, 언니는 저 짹, 영호 니는 조 짹으로 가라이.

(연순 집으로부터 세 갈래로 쪼로록 퍼져 나가는 세 사람.)

S#46 동네 집들

㉡(나영과 영호와 연순이 부침개를 돌리고 있다.)

연순 (지나가는 말인 척하지만 신신당부) 모다들 바쁘니까 그릇은

나영 (다른 집, 연순 소리에 이어서) 나중에 인편으로 보내 주시면 돼요.

연순 (또 다른 집, 나영 소리에 이어서) 기냥 아는 사람헌디. 그랴요, 혹시 우체부 들르른 그 편으로다…….

영호 (또 다른 집, 연순 소리에 이어서) 올 누나가 우체부 아저씨헌디 보내라는다. 꼭 우체부라야 쓴대요.

S#47 어느 집

연순, 막 부침을 주고 나오려는데 집 앞 돌담길 위로 우체부 모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연순, 대문 밖으로 나와 우체부가 어디로 가나 본다. 저쪽 반대편 길로 접어들었다. 연순, 집으로 다시 뛰어 들어간다. 집주인이 부침개를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릇을 뺏으며

연순 쩌그, 이게 지독허니 짜게 부쳐져서 내 다른 길로 갖다 드릴게요.

(연순, 부침개 그릇을 들고 뛰기 시작한다.)

S#48 길

㉢(큰길을 뛰는 연순. 조발이 보이는 길을 뛰는 연순. 바다가 보이는 길을 뛰는 연순. 돌담길을 뛰는 연순. 이마와 볼에 땀이 흐른다.)

S#49 어느 집 앞

연순이 막 집에서 나오고 있다. “그릇은? 그릇 가져 가아제?”하는 주인 소리. 연순은 급히 집에서 빠져 나와 달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그 집으로 우체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연순. 만족한 표정.

S#50 연순 집

돌아오는 그릇들. 영호 친구가 그릇을 가져오고 영호와 딱지 치러 나간다. 꼬부랑 관씨 할매가 허우적허우적 그릇을 가져온다. 개 한 마리가 그릇을 물고 들어온다. ㉣(쌓이는 그릇. 실망하는 연순. 그걸 보는 나영.)

경과. 저녁. ㉤(찌르릉 하는 자전거 소리. 마루의 나영. 우체부 진국이 들어온다. 나영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부엌에서 나오는 연순. 진국이 빈 그릇 하나를 내밀자 환하게 밝아지는 연순의 모습.)

S#51 연순의 방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밤. 나영과 연순 얇은 이불을 덮고 각기 누워 있다. 나영, 잠이 오지 않는다. 옆자리 연순의 가늘게 코 고는 소리. 좋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

나영 (혼잣말) 웃긴다. 이런 거 좀 웃겨 엄마. 같은 또래라서 그런가? 엄마가 이런 모습일 줄 상상이나 했겠어? 엄마가 언니, 언니 할 땐 진짜 동생 같애. 우습다.

- 송혜진·박홍식 각본, 「인어공주」 -

18.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호는 연순의 연애를 방해하고 있다.
- ② 관씨 할매는 연순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나영은 곤란에 빠진 영호를 도와주고 있다.
- ④ 연순은 이웃에 대한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다.
- ⑤ 연순은 서울에서 온 나영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작품 전체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 글은 [A]에 들어가는 에피소드의 하나이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현실</th></tr> <tr><td>억척스러운 엄마와 갈등하는 나영</td></tr> </table>	현실	억척스러운 엄마와 갈등하는 나영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환상</th></tr> <tr><td>[A]</td></tr> </table>	환상	[A]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현실</th></tr> <tr><td>엄마와 통화를 하며 미소 짓는 나영</td></tr> </table>	현실	엄마와 통화를 하며 미소 짓는 나영
현실										
억척스러운 엄마와 갈등하는 나영										
환상										
[A]										
현실										
엄마와 통화를 하며 미소 짓는 나영										

- ① 나영이 몰랐던 엄마의 순수함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나영에게 엄마가 현실 속의 모습처럼 바뀐 이유를 보여준다.
- ③ 나영이 평소 그리워하던 과거의 추억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
- ④ 나영이 엄마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 ⑤ 나영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20. 부침개 그릇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 ② 이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③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④ 우체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⑤ 풍족하고 부유했던 생활을 드러낸다.

21.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고자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부엌에서의 상황을 일일이 촬영하지 않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해야겠군.
- ② ㉡: 연순, 나영, 영호의 장면을 각각 촬영한 뒤 하나의 연속물로 결합시켜야겠군.
- ③ ㉢: 달리는 연순의 고통이 잘 드러나도록 클로즈업을 해야겠군.
- ④ ㉣: 쌓여가는 그릇과 실망하는 연순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줘야겠군.
- ⑤ ㉤: 연순의 심리 변화가 일어날 것을 크고 맑은 자전거 소리로 알려 줘야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의성어나 의태어가 어떤 말을 가리키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금방이라도 예 몇 개쯤은 들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멍멍’, ‘우당탕’ 등을,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로 ‘영금영금’, ‘번쩍번쩍’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런 의성어·의태어는 의미나 실제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에서 다른 어휘 부류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성어·의태어는 그 의미가 감각적이며 함축적이고 은유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소리나 모양, 움직임을 직접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대신 소리를 바로 들려주고, ‘화살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대신 날아가는 모양을 바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글자에서는 소리가 나거나 모양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신 ‘뽕’이라는 의성어나 ‘획’이라는 의태어를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 기능은 문장에서 직접인용의 형식으로 극대화된다.

또한 의성어·의태어는 한자어에 비길 만큼이나 응축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본래 국어는 조사나 어미에 의해 품사가 바뀌거나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데 이를 국어의 첨가어적 특징이라 한다. 이것은 한자어가 특별히 붙는 말 없이 그 자체로 문장 성분이 되는 것과 비교된다. 그런데 의성어·의태어는 서술어나 서술격 조사 없이도 서술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성어·의태어는 우리말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의성어·의태어는 대체로 호응하는 주어, 서술어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장아장’이라는 의태어가 아기가 걷는 모습을 표현하면 어울리지만 할아버지에 쓰면 어색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의성어·의태어의 제한은 은유적 확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은유란 실제적으로 참이 아닌 사실을 말할 때, 청자(독자) 입장에서 화자(필자)의 의도를 추리하여 해석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철수는 늑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철수’가 늑대가 아닌 사람이므로 왜 화자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고 그 의도를 추리해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성어·의태어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 부류로서, 시각을 청각으로, 혹은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공감각적 표현이라든지, ㉠비감각적인 추상적 대상을 감각화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은유가 발생한다. 예컨대 다리를 가진 동물에 쓸 수 있는 ‘껍충’이라는 의태어를 ‘물가(物價)’와 같은 추상명사에 적용하면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의성어·의태어는 대부분의 주어, 서술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② 의성어·의태어는 언어의 응축된 의미를 표현하는 데 한자어 만큼 뛰어나다.
- ③ 대부분의 한국인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④ 의성어·의태어는 은유적 확대를 통해 한정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폭넓게 쓸 수 있다.
- ⑤ 움직임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의태어를 쓸 때 직접인용을 하면 효과적이다.

23.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반도 통일설 왜 ‘술술’ 나오나
- ② 대회 일정에 차질, 종일 ‘삐걱삐걱’
- ③ 수학 퍼즐 풀다보면 수리력이 ‘쑥쑥’
- ④ 공공화장실 수도꼭지 망가져 물 ‘줄줄’
- 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구열 ‘활활’ 타올라

2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하여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 산문>	<신문 기사 제목>
ㄱ. 기름값이 크게 오른다.	→ *기름값 크게 오르
ㄴ. 기름값이 대폭 인상(引上)된다.	→ 기름값 대폭 인상
ㄷ. 기름값이 경충 뿔다.	→ 기름값 경충
*은 비문임.	

- ① ㄱ을 보니 우리말은 어미 없이 문장을 구성하기 어렵구나.
- ② ㄴ을 보니 신문 기사 제목은 조사나 어미가 생략될 수 있구나.
- ③ ㄷ을 보니 의태어가 우리말의 첨가어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구나.
- ④ ㄷ을 보니 같은 의태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서로 다를 수 있구나.
- ⑤ ㄴ, ㄷ을 보니 신문 기사 제목에는 한자어와 의태어의 응축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구나.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조 광해군 때,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청하였다. 영철은 출전하였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어 건주(建州)와 등주(登州)에서 각각 결혼하여 처자식을 두지만, 부모님이 그리워 탈출하여 고향에 이른다.

신사년(1641)에 조선 군대가 금주(錦州)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시키고자 하여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나서고, 여덟 명의 고산대장(高山大將) 또한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금주성을 에워쌌다. 고산대장이 매번 사자(使者)를 조선군 진중(陣中)에 보내니 유림이 사자 대접하는 일을 영철에게 맡겼다. 한 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 청나라 장수가 영철을 한참 보더니

“내 너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소신(小臣), 장군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하니 청나라 장수가 노하여 말하되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이에 영철이 청나라 장수를 자세히 보니 옛적 건주에서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라나(阿羅那)장군이였다.

“이놈아 듣거라! 내가 네게 세 번의 큰 은혜를 베풀었노라.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이고,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그 둘이며, 내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건주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니라.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 셋이니,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이며, 도망가면서 내 친리마를 훔쳐갔으니 이것이 세 번째이니라. 나는 네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친리마 세 필을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도 원통하도다. 내 이제 다행히 너를 만났으니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공(主公),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족 놈들이 한 것이옵니다. 당시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홉 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소서! ㉡제가 처자를 버리고 도망한 것이 어찌 제 본심이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장군의 조카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살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한 마리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치 못하리라.”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하되

“장군, 이 자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의 몸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니 ㉔공께서 호생(好生)하는 덕을 보전하십시오.”

그러고는 세남초(細南草) 이백 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이때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다.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며 허락하였다.

(중략)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림이 영철에게 말하되

“네가 금주에서 아라나에게 잡혀갈 때 세남초 이백 근으로 네 몸값을 치러 너를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니라. 이제 각 진영에서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호조(戶曹)에 바쳐야 하는데 세남초 값은 네가 갚도록 하거라.”

영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軍門)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㉕“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을 아니 갚지는 못할 것이니라.”

“장군,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장군에게 달렸으니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

㉖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림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려듣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 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호조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냥 갚기를 재촉하였다. 호조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 현령은 영철의 일가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중에 한 명이 분개하여 말하되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종군(從軍)하면서 들인 노고(勞苦)와 세운 공(功)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상조차 주는 일 없고 도리어 이렇듯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나?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나?”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호조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충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㉗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 하리오.

- 홍세태, 「김영철전」 -

2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일가친척이 영철을 원망한 것은 영철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이다.
- ② 아라나가 유림의 부탁을 못이기는 척 받아들인 것은 세남초 때문이다.
- ③ 아라나가 자신의 천리마를 영철에게 맡긴 것은 영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 ④ 유림이 영철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자신에게 청노새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영철이 유림이 치른 몸값을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은 전쟁에 나가 세운 자신의 공이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6. ㉑~㉗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상대에게 반문하여 자신을 몰라보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 ② ㉒: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㉓: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아량을 베풀어 주길 부탁하고 있다.
- ④ ㉔: 공적인 이유를 끌어 들여 반론의 여지를 막고 있다.
- ⑤ ㉗: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

27. <보기>와 관련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후반부터 나온 대부분의 전쟁 소설 「박씨전」, 「임경업전」 등이 민족 영웅의 활약상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자 했던 것인 반면, 「김영철전」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중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즉 역사의 상층부만이 아니라 하층부의 역사적 삶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 ① 당시 상층부들이 실리보다 명분에 얽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전쟁에서 활약하는 영철을 통해 영웅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영철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 ④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민중이 겪었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삶이 역사적 현실을 변모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8. ㉖에 나타난 ‘유림’의 태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자포자기(自暴自棄)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 ⑤ 일희일비(一喜一悲)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들어 화두가 되는 IT 관련 용어가 있으니 바로 클라우드(Cloud)이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무엇인가?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기존의 웹하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웹하드는 일정한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인터넷 환경의 PC로 작업한 문서나 파일을 저장, 열람, 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클라우드는 이러한 웹하드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한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각종 단말기끼리 동기화 절차를 거쳐 동일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클라우드는 구름[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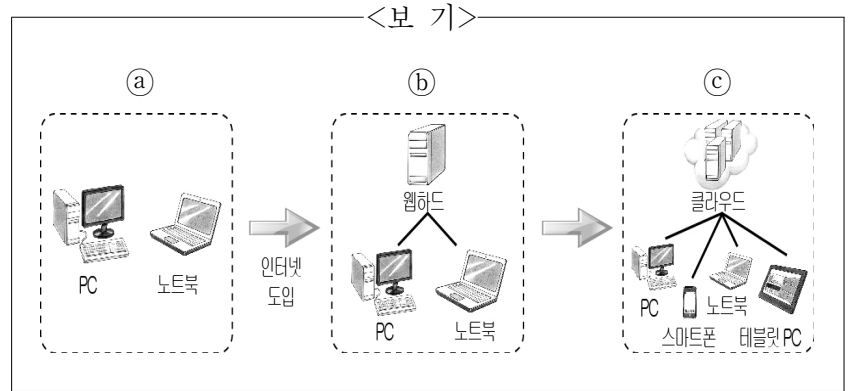
클라우드는 평소에 남는 서버를 활용하므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자에게도 유용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유용하다. 개인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에 저장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 가상화 기술과 분산 처리 기술로 서버의 자원을 묶거나 분할하여 필요한 사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컴퓨터 가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가용률은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린 IT 전략과도 일치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 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버가 해킹 당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위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클라우드의 개념
- ② 클라우드의 장점
- ③ 클라우드의 변천 과정
- ④ 클라우드의 해결 과제
- ⑤ 클라우드의 주요 구성 기술

30.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온라인 컴퓨팅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 ② ㉡부터 인터넷 환경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 ③ ㉢에서는 사용자보다 운영자 중심의 컴퓨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 ④ 소프트웨어의 제공 유무에 따라 ㉠과 ㉡로 분류된다.
- ⑤ ㉡와 달리 ㉢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31. '클라우드'를 ㉠으로 볼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남는 서버를 활용하여 컴퓨팅 환경을 제공함.
 ㉡. 빌려 쓴 만큼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유료 서비스임.
 ㉢. 사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
 ㉣.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개인 컴퓨터의 가용률을 높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2.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회사원 가 씨: 클라우드에 업무 파일을 올려 팀과 자료를 공유해야겠군.
- ② 연구원 나 씨: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방송인 다 씨: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겠군.
- ④ 대학생 라 씨: 내 과제 파일이 PC에서 삭제된다 해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⑤ 기업인 마 씨: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사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살펴 볼 수 있겠군.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격분산(price dispersion)이란 동일 시점에 동일 제품에 대해 상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격분산이 존재하면 소비자는 특정 품질에 대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구매력은 그만큼 저하되고, 경제적 복지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가격분산이 존재할 때 가격은 품질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만약 소비자가 가격을 품질의 지표로 사용한다면 많은 경제적 위험이 따르게 된다.

가격분산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판매자의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요인, 소비자 시장구조에 의한 요인, 재화의 특성에 따른 요인, 소비자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판매자 측의 경제적인 이유로는 소매상점의 규모에 따른 판매 비용의 차이와 소매상인들의 가격 차별화 전략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가격 차별화 전략은 소비자의 지불 가능성에 맞추어 그때그때 최고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둘째, 소비자 시장구조에 의한 요인으로 소비자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거할 때 각종 가격 세일을 실시하는 것과 소비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재화의 특성에 따른 요인으로 하나의 재화가 얼마나 다른 재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 즉 보완재의 여부에 따라 가격분산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소비자에 의한 요인으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그릇된 인지를 들 수 있다. 소비자가 가격분산의 정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가격분산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정보 탐색을 적게 하고 이는 시장의 균형을 낮춤으로써 가격분산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시장에서 가격분산의 발생은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 정보 탐색을 통해 구매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A] 그러면 정보 탐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탐색을 함으로써 얻는 총이익이 탐색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총비용을 능가할 때까지, 즉 순이익이 보장될 때까지 탐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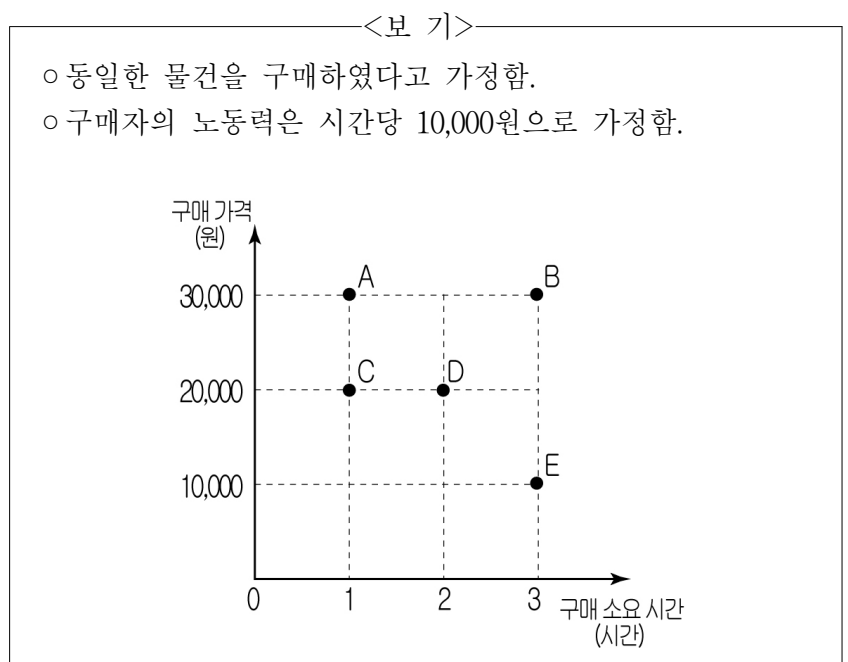
33. 위 글을 통해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격분산이 큰 제품일수록 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것이다.
- ② 대체할 재화의 유무에 따라 가격분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있으면 가격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정보력의 부재는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것이다.
- ⑤ 소비자들은 충실한 정보 탐색을 통해 가격분산에 따른 구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4. ㉠에 따른 합리적 소비 행위의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문방구에서 점포 정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B문방구보다 300원 더 싸게 색연필을 샀다.
- ② 요금이 5,000원인 A미용실 대신 사은품도 함께 주는 B미용실에서 10,000원에 머리를 잘랐다.
- ③ 며칠 전 개업해서 라면 한 개당 50원을 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지만 그냥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단골 가게에서 샀다.
- ④ USB 저장장치를 사려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망설이다가 신제품의 개발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후 제품을 구입하였다.
- ⑤ 대리점과 인터넷을 비교하였더니 두 곳의 가격이 같아서 당장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에서 전자 사전을 구입하였다.

35.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진 지점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조선이 해방됐다며 만세를 불렀다.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해방 만세, 독립 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다. 지서며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았다간 들킬 세라 금방 사라졌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장터마당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 한다며 쭈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랑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쓸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귀엣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꾼 이모부님조차 알면서 모른 체하는지 입을 아예 봉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뱃가죽이 팽팽거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 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 뺨 정도 뛰지만 이틀날은 쪼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뒤면 한 뺨쯤 뛰고, 두 달쯤 뒤면 두 뺨을 뛰고. 그 다음다음 달은……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내가 물었다.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깐.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잎에 다시 놓아주었다. 아버지 이야기는 재미가 없었다. 심심해서 해본 말 같았다.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일이 꼭 청개구리 하는 짓을 닮았다. 죽을 때까지 뿔다던 청개구리의 높이뛰기. 아버지는 얼마만큼 높이 뛰고 언제까지 뿔까. 그때까지만도 나는 아버지가 죽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두렵다. 땅거미가 깔린다. 곧 사방이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은 두렵다. 캄캄한 밤이 싫다. 벌써부터 내일 새벽이 기다려진다. 금병산 산마루 위로 해가 솟아 날이 환해질 때까지, 나는 잠을 설칠 거였다. 날이 밝으면, 내 어릴 적에 왜 그런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냐고 묻기 전, 아버지는 돌아가서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중략)

나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이, 이렇게 죽고 말아뿌리다!”

나는 흐느낀다. 이모부님이 내 팔을 잡는다. 나는 이모부님 손을 뿌리치고 내닫는다. 내 눈에 이모부님도, 보초 선 의용경찰원도 보이지 않는다.

“아부진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하다 돌아가셨어. 아이다, 죽지 않았어! 거짓말처럼 죽은 체하고 있는 기라!”

나는 혈떡거리며 집과 반대쪽 철길 아래 들녘으로 내닫는다. 숨이 턱에 닿는다. 달빛에 뿌옇게 드러난 강둑이 보인다. 땀과 눈물로 찻찻한 눈 주위를 닦는다. 강둑에 올라서자 나는 숨을 가라앉힌다. 강물이 흐른다. 언제 보아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간다. 달빛을 받은 강물이 비늘처럼 번뜩인다. ㉢강 건너 키 큰 미루나무가 아버지 모습 같다. 강 건너에서 빨리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나는 그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없다. 어릴 적, 아버지와 나는 이 강둑을 거닐며 많은 말을 나누었다. 언제인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거라. 다음에 크면 어떤 길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평등을 가져다주는 길인지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내 마음에 소름을 일으키며 파고든다.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는 내게 그런 말을 들려줄 수 없다. 나는 홀연히 떨기 시작한다. 서른일곱 살 나이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길지 않은 인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다. 두려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를 세차게 친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안개 저쪽같이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나는 이제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 힘차게 버티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심이 내 가슴을 적신다. 눈물을 그 느낌이 달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초여름, 이 땅에 전쟁이 났다. 이모부님은 남쪽과 북쪽이 싸운 그 전쟁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밀고 당길 이듬해 가을, 갑자기 별세하셨다. 나는 성년이 된 뒤까지 이모부님이 왜 그때 아버지 시신을 내게 확인시켜주었는지에 대해 여쭙어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 김원일, 「어둠의 혼(魂)」 -

3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이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눈을 빌림으로써 가치 판단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존재감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아버지의 자상함과 '나'에 대한 아버지의 바람과 당부가 나타난다.
 - ④ ㉣: 아버지의 죽음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다.
 - ⑤ ㉤: '나'의 굳었던 결심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으로 변화하고 있다.

38.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의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현재의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개구리의 높이뛰기는 이상과 한계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나타낸 것 같아.
 - ③ 시대의 질곡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
 - ④ 아버지가 '나'에게 장차 삶의 지침으로 삼길 바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끌어온 이야기라고 생각해.
 - ⑤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아버지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3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한편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며 창작 당시 작가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한,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 ① 아버지가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 ② '나'와 아버지가 거닐며 나눴던 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 ③ 아버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 ④ '나'가 겪은 사건의 시대적 상황과 작품을 쓸 당시의 작가의 가치관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
- ⑤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음악을 소리로써 무언가를 표현하는 언어에 비유하곤 한다. ‘음악은 언어다’라는 말에 담겨진 다양한 의미는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언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음악도 무언가를 표현한다고 여겼고 이런 점에서 특히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다’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중시했던 음악의 도덕적·윤리적 작용보다는 음악이 지닌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언어, 즉 가사를 통해 사람의 마음 상태나 사물 혹은 환경 등을 음악적으로 잘 묘사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들로 나타났다. 시인과 음악가들의 문예 모임인 피렌체의 카메라타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연극과 음악이 결합된 예술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이 가사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여러 성부가 동시에 서로 다른 리듬으로 노래하는 다성음악 양식은 그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 대신 그들은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선율 노래인 모노디 양식을 고안하였다. 이는 후에 오페라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당시 음악에서 가사와 그것이 나타내는 감정의 표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생각은 ‘감정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쁨’, ‘분노’, ‘비통함’ 등의 단어로 표현하듯이, 특정한 정서가 그것을 연상시키는 음정, 화성, 선율, 리듬과 템포 등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곡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음악에서 묘사되는 감정은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된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감정 표현은 ‘서술 원리’에서 ㉡‘표출 원리’로 변하였다. 철학자 헤겔은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주관적 내면성’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과는 달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가사를 가진 음악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즉 기악이 만들어 내는 추상성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어로 보완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악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 ② 내용 전달 목적의 노래에서는 다성음악 양식이 효과적이다.
 - ③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의 도덕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 ④ 르네상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가사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 ⑤ 고대 그리스 비극은 연극과 음악이 결합된 예술 양식이었다.

41. <보기>는 ㉠과 다른 입장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오페라의 레치타티보는 주인공의 감정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일종의 읊조림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실상 레치타티보에서 음악은 시너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감정 표현을 위한 언어가 음악과 합치하지 않고 오히려 음악을 방해하고 음악과 대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① 끊임없이 바뀌는 색채와 형태의 만화경처럼 음악의 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 발전하여 아름다운 음악적 형상과 음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② 동백꽃은 향기가 없고, 백합은 색깔이 없다. 장미는 향기와 색깔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장미가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 ③ 언어를 위한 시가 있듯이 감각을 위한 시가 존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각을 위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예술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일이다.
- ④ 춤이 감정과 생각을 몸동작과 표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춤의 형식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율동성을 버리면 버릴수록, 형식은 없고 의미만 있는 팬터마임에 가까워질 뿐이다.
- ⑤ 조화로운 구도의 사진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곧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조화의 법칙을 연구하여 완벽한 표현을 위한 특별한 것을 빌려 와야 한다.

42.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의미하는 바는?
- ① 화성과 선율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 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
 - ③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 ④ 기악이 만들어 내는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 ⑤ 내용과는 무관한 형식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43. 17세기 '감정 이론'의 관점에 따라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베르너의 <들장미>는 괴테가 한 아가씨를 사랑하던 시절에 쓴 시 '들장미'를 가사로 하여 만들어진 독일 가곡이다. 이 가곡은 들장미의 아름다움과 순박한 어린이의 서정적인 정감이 담겨 있고 부르기 쉬워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다.

조금 느리게 베르너 작곡

- ① 'f(세게)'를 통해 괴테의 시에 감동을 받은 베르너의 열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군.
- ② '조금 느리게' 흐르는 선율을 통해 장미가 핀 평화로운 들판을 생각나게 하려 했군.
- ③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④ 조화로운 화성으로 사람들이 들장미를 바라보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군.
- ⑤ '6/8박자'를 통해 독일인의 순박한 정감을 전달하려 노력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운동을 하는 놀이기구나 회전하는 선풍기 날개의 한 점을 보면 원을 그리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체가 반지름이 일정한 원둘레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라 한다. 그렇다면 등속 원운동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A]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한다.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여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만유인력*, 실의 장력* 등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심력의 크기는 원 궤도의 반지름(r)에 반비례하며 물체의 질량(m)과 속력(v)의 제곱에 비례한다. (구심력 $F = \frac{mv^2}{r}$)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를 외부에서 정지한 채로 바라보았을 때는 구심력만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 즉 회전 좌표계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물체와 함께 원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체가 원의 중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물체가 원의 중심 쪽으로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

심력과 크기가 같은 힘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여 구심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 한다. 원심력은 회전 좌표계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다.

이처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여러 힘이 숨어 있다. 물체의 운동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에 담긴 비밀을 푸는 열쇠 구실을 한다.

- * 만유인력: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 * 장력: 물체에 연결된 줄에 작용하는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

4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그림을 보니 ①인공위성 A, B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만유인력인데. 그리고 그 ②구심력은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어. 위 글의 수식에 따르면 ③원 궤도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클수록 구심력이 커지고, ④속력이 클수록 구심력이 커지겠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실제로 인공위성 A의 속력이 B보다 빠르니까 ⑤둘 중 구심력이 큰 것은 B라는 결론이 나오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세탁기의 탈수 과정을 떠올려 보자. 회전통의 ㉡회전축이 돌아갈 때 ㉢회전통의 벽면에 붙은 ㉣물에 젖은 옷은 빠르게 회전한다. 이때 옷의 물방울은 회전통을 따라 회전하다가 뚫려 있는 여러 개의 구멍을 만나면 ㉤회전통 밖으로 빠져 나간다.

- ① ㉠: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
- ② ㉡: 구심력을 방해하는 힘
- ③ ㉢: 원심력 역할을 하는 힘
- ④ ㉣: 구심력을 받는 물체
- ⑤ ㉤: 두 힘이 평형이 되는 지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여백입니다.